|  |  |
| --- | --- |
| 태 양 광 뉴 스 | |
| EMB00000d140414 | **제49호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

**1. OCI, 中 태양광 부양 의지 확인…업황 개선 기대-신한투자**

<출처 – 한국경제 / 최성남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7일 OCI에 대해 중국의 태양광 시장 부양의 의지가 확인되면서 시황 개선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1만원을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응주 애널리스트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2012년 상반기 60억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 70억위안을 추가 할당한다고 발표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을 통해 5.2G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 기간(2011~15년) 동안의 태양광 설치 목표를 21GW에서 40GW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애널리스트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수급 밸런스를 바꿀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년 10GW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셈인데 2012년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수요가 30~33GW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수치"라고 분석했다.

내년 초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는 "1kg당 15달러대까지 하락한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초 이후 반등할 전망"이라며 "생존을 위해 감산 및 재고 청산(현금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잉곳/웨이퍼업체(폴리실리콘 구매자)들이 연초 이후 가동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공급 과잉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내년 태양광 시장의 수요는 35~40GW로 전망된다"며 "태양광 공급 능력이 40GW를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공급 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 삼성, 태양광 사업 줄이나?**

공급과잉 ‘결정형 태양전지’… SDI서 디스플레이로 이관 추진

‘박막형’은 종합기술원으로

<출처 – 동아일보 / 김용석, 정지영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SDI의 태양전지 사업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SDI의 결정형 태양전지 사업을 삼성디스플레이로, 박막형 태양전지 사업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으로 각각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태양전지는 제조 기술에 따라 결정형과 박막형으로 나뉘는데, 결정형은 글로벌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고 박막형은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편은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당초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사업부가 맡던 태양전지 사업을 작년 7월 삼성SDI에 이관했지만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를 1년 6개월여 만에 삼성디스플레이(옛 삼성전자 LCD사업부)와 삼성전자로 각각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정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벌여 온 삼성SDI는 태양전지 모듈 가격이 2010년 말 와트(W)당 1.7달러에서 올 8월 0.7달러로 떨어지는 등 가격이 폭락해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증권가는 삼성SDI가 태양전지 사업에서 3분기(7∼9월)에만 13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최근 결정형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는 한편으로 태양광 사업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삼성디스플레이로 원대 복귀할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90여 명의 직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결정형보다 진화한 ‘2세대 기술’로 불리는 박막형 태양전지 사업도 삼성SDI에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으로 넘기면서 사업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올해 들어 광에너지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박막형을 중심으로 태양전지 사업을 키우려는 계획을 수립 중이었지만 사업 이관이 확정되면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크게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안팎에선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메스를 대는 이 같은 사업 재배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삼성그룹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삼성중공업의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인력을 삼성에버랜드로 재배치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개발회사인 SB리모티브를 삼성SDI에 흡수합병시키는 등 계열사 간 사업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3. LS산전, 수상 태양광기술 日 수출**

<출처 – 그린데일리 / 박태준 기자>

LS산전이 수상태양광발전 기술을 일본에 수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S산전은 일본 태양광패널 전문기업인 웨스트홀딩스와 공동으로 대용량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웨스트홀딩스는 LS산전의 수상 태양광모듈과 부력기술 등 관련 장비를 포함해 시공기술을 도입해 일본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첫 사업은 웨스트홀딩스가 지난 10월 사업자로 선정된 사이타마현 오케가와시 동부 공업단지 내 조정연못에 1360㎾급의 태양광 설비다. 내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계약 규모는 1000㎾급의 육상 태양광발전 시공비가 25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약 35억원 전후가 될 전망이다. 웨스트홀딩스는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공원 내 호수에 2000㎾의 수상태양광발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웨스트홀딩스는 일본 내 250개소의 발전용량 50만㎾ 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본 내 태양광발전 시장 과열경쟁으로 토지임차비용이 급증하자 LS산전 기술을 기반으로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LS산전은 지난 7월 한국수자원공사 경남 합천댐에 100㎾급의 수상태양광발전기 설치를 완료했다. 추가로 500㎾의 수상태양광발전 설치를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수면태양광발전은 육상발전 비해 자연냉각효과가 뛰어나다. 수면으로부터 반사된 태양광이 다시 발전모듈로 모여 효율이 10%이상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LS산전은 모듈 설치특성을 고려해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봉지재를 적용, 기존 모듈에서 나타나는 황변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황변현상= 태양전지의 색상이 누렇게 변색돼 전력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태양전지의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한 별도 충진제 층의 대표 물질인 EVA가 자외선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변색되는 것이 주 원인이다. 황변현상이 발생한 태양전지는 심할 경우 1년에 5~15%까지 효율이 떨어진다. 정상적인 태양전지의 효율저감은 보통 1년에 0.8% 이하 수준이다.

**4. 판 커지는 日태양광...`기회의 땅`**

<출처 – 그린데일리 / 최 호 기자>

국내 태양광업계의 일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메가솔라(대규모 태양광발전)프로젝트 활성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태양광업계에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일본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일본 태양전지기업의 전지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을 위해 신규로 출하된 태양전지 물량은 지난해 대비 640%, 주택용은 52.7% 증가했다. 시설용량으로 따지면 각각 100㎿, 820㎿로 합계 1GW에 육박한다.

일본의 원전 축소정책 이후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올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한 것이 태양광 시장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급하는 ㎾당 42엔의 보조금은 최근 제품 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충분한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올해 일본 태양광 시장 총 설치량은 2GW 내외로 예상되며 새해 3GW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발전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유럽이 주춤한 사이 일본이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떠올랐다. 메가솔라 프로젝트가 연이어 발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마루베니의 자회사 오이타 솔라파워, 교세라, 미쓰이물산 등 사업자들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품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태양전지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해 졌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미쓰이화학·물산이 2014년 10월 운영을 시작하는 50㎿ 메가솔라 프로젝트에 교세라, 샤프와 함께 태양전지 공급사로 참여한다. 한화솔라원 역시 시바우라그룹HD가 건설하는 23㎿ 태양광발전소사업, 오이타솔라파워가 추진하는 81.5㎿ 사업에 태양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유라스에너지HD가 건설하는 10㎿ 사업에 미쓰비시와 함께 태양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샤프, 산요, 교세라 등 일본 태양전지기업의 가동률 증가로 국내 잉곳·웨이퍼 업계도 반색이다. SKC솔믹스가 일본 태양전지기업과 웨이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웨이퍼업계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잉곳·웨이퍼 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에서 국산 태양전지, 웨이퍼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제품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중국, 대만산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평가”라고 말했다.

홍승민 코트라 나고야무역관은 “메가솔라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출자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급성장하고 있는 가정용 태양광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AS망 확충, 품질향상 등으로 브랜드인지도를 쌓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표// 일본 메가솔라 참여 기업 현황 (단위: ㎿)

자료:코트라 글로벌윈도



**5.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

하천부지 4개소, 총 61MW급, 민간투자 1천650억원

<출처 – EBN / 손병문 기자>

대구시가 솔라시티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낙동강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으로 유휴면적이 늘어난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에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대구시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이 프로젝트는 낙동강 고수부지 4개소 61MW(하빈 13, 옥포 15, 달성13, 구지 20)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총 사업비 1천650억원은 RPS제도와 연계해 전액 민간투자로 이뤄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13세계에너지총회´와 연계해 하빈 지역 대상으로 13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앞서 사업추진은 ´하천법´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한 결과 현행 하천법상 홍수 시 재난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내 고정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규정을 둬 관계부처와 사업추진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4일 녹색성장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대구시 관계자가 모여 "홍수 시 물 흐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도 좋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제공=대구시.

발전업계에 따르면 낙동강 전체 하천부지의 태양광발전 잠재량은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200만k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국내 최대규모로 지역의 전력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2030년까지 대구시가 목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11% 달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비 1천650억원 중 1천100억원 정도가 태양광 모듈 구매 등에 소요됨에 따라 향후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제품 구매와 설치과정에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대구시는 낙동강 태양광프로젝트와 함께 자전거도로, 도심지역의 상수도․하수도 여유부지, 공원지역 주차장, 학교건물 등의 캐노피사업을 통해 2016년까지 40MW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도 마련중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면서 "향후 10년간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00만kW급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구축을 통해 대구를 세계적인 솔라시티 허브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